

‘SUV+세단’ ‘SUV+쿠페’ ‘해치백+SUV’ ... 크로스오버스타일 각광

‘섞어야 산다’... 자동차도 융합 바람

“이게 세단이야 SUV야?”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세단, SUV와 쿠페, 해치백과 SUV 등 서로 다른 스타일을 하나의 차체에 구현한 크로스오버 스타일이 각광받고 있다.  
이런 경향은 특히 수입차 업계에서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업체가 독일차 BMW다. BMW는 세단과 SUV를 뒤섞은 GT(그란 투리스모) 시리즈, SUV에 쿠페 스포츠카의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스포츠액티비티쿠페(SAC)로 지난해 큰 재미를 봤다. 3시리즈의 디젤 세단인 320d를 기반으로 한 320d GT는 2013년보다 92% 증가한 778대, 4륜 구동을 적용한 320xdrive GT는 무려 89% 늘어난 797대가 팔렸다. GT ED 모델도 23% 늘어난 1608대가 판매됐다. 지난해 국내 GT 시리즈의 판매량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BMW 코리아측은 전했다.  
BMW 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처음 나왔을 때에는 꼭 떨어지는 세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SUV로도 볼 수 없는 어정쩡한 모델이라는 평가 속에 호불호가

BMW, SAC로 작년 재미 ‘솔솔’

벤츠, CLA-클래스 젊은층 인기

볼보, 크로스컨트리 국내시장 출시

갈린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단에 비해 실내 공간이 월등히 넓고, SUV처럼 차량 높이가 높아 운전이 편하다는 소문이 나며 반응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형 SAC인 뉴 X4도 전년보다 28% 증가한 총 5547대가 팔려 BMW가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4만대 판매 고지에 오르며 수입차 업계 1위를 수성하는 데 큰 힘을 보탤 예정이다. BMW는 여세를 몰아 내달에는 또 다른 크로스오버 차량인 2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를 선보인다. 소형 해치백이지만 2시리즈 쿠페에 비해 차체를 높여 SUV 느낌이 나도록 한 차량이다.

정통 세단이나 SUV에 집중한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최근 크로스오버 차량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소형 세단에 날렵한 스포츠카를 뒤섞어 놓은 듯한 CLA-클래스는 지난해 중반 첫선을 보인 이래 젊은층을 적극 공략하며 총 1133대가 팔리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볼보자동차도 최근 이런 흐름에 가세했다. 볼보는 최근 해치백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섞어놓은 듯한 새로운 개념의 차량 크로스컨트리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2012년 파리모터쇼에서 첫선을 보인 이 차량은 소형 해치백 V40을 기반으로 높이와 최저지상고를 각각 38mm, 12mm 높여 도심과 오프로드(비포장길) 모두에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런 크로스오버 바람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크로스오버 차량은 개성을 추구하면서도 실용성도 중시하는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들어맞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통 스타일을 넘나드는 차량이 향후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BMW 320DGT



메르세데스 벤츠 CLA 클래스



현대차, 북미용 픽업트럭 양산 관심

(차량 뒷부분 열린 짐칸 달린 차)

美 디트로이트 오토쇼

‘싼타크루즈’ 공개 호평

현대자동차가 최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015북미국제오토쇼’에서 깜짝 공개한 픽업트럭 콘셉트카 ‘싼타크루즈’에 대해 해외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가 선보인 싼타크루즈는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럭을 연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콘셉트카로, 현대차 미국법인(HMA)이 기획과 디자인을 맡은 첫 차량이다.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SUV 정도로 크기를 줄였음에도, 필요하면 적재함을 최대 중형 픽업트럭 수준으로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된 눈길을 끌었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이달 17일자(현지시간)에서 싼타크루즈를 “전면부는 실용적

인 SUV를 닮았고, 후면부는 픽업트럭의 모습을 한 흥미로운 콘셉트카”로 소개하면서 닛산의 타이탄 등과 함께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꼭 봐야 할 5’로 선정했다.  
이 신문은 적재함을 캐비닛의 서랍처럼 끌어당겨서 늘릴 수 있는 점을 가장 우수한 특징으로 꼽았다.  
픽업트럭은 차량 뒷부분에 뚜껑 없는 짐칸이 달린 일종의 소형트럭이다.  
국내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땅이 넓은 미국의 특성상 많은 집을 신고 다닐 수 있어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차종으로 꼽힌다. 미국의 GM 등 빅3와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업체들은 모두 픽업트럭을 생산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그동안 검토만 했을 뿐 실제 양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양용철 현대차그룹 연구개발 담당 부회장은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픽업트럭을 꼭 양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콘셉트카의 반응을 본 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지난해 영업이익 2조5725억 ... 4년만에 최저치

원화 강세·신흥국 통화 약세 탓 300만대 첫 돌파 47조 매출 기록

기아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원대 중반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원화 강세 및 신흥국 통화 약세 탓으로 풀이된다.  
기아차는 지난 23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2014년 경영실적 발표회를 열고 지난해 연간 304만1048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47조9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K시리즈, 스포티지R 등 주요 차종의 판매 호조로 총 판매가 7.6% 늘어나는 등 사상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 생산·판매 300만대를 돌파했으나 매출액은 원

화 강세에 따른 실적 기준 환율이 하락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무려 19.0% 하락한 2조5725억원에 그쳐 2010년(2조4천900억원)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영업이익률도 전년의 6.7%에서 5.5%로 1.2%포인트 낮아졌다.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각각 21.0%, 21.6% 감소한 3조8163억원, 2조9936억원을 나타냈다.  
기아차 측은 “수출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 구조상 평균 환율이 전년 동기에 비해 41원 하락(1095원→1054원)하고 러시아 루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11조7019억원, 영업이익은 5006억원을 기록했다.

기아차는 올해 역시 금융시장과 신형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업체의 공세가 계속되는 등 경영 환경이 녹록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 방침을 내실경영 강화, 기업제질 개선으로 잡고 전년보다 3.6% 늘어난 연간 315만대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수익이 많이 나는 주력 차종인 K5, 스포티지 신형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고, 저유가로 인해 소비자 선호 차급이 중대형과 레저용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쏘렌토, 카니발 등에 대한 판촉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템퍼러리 타이어, 펑크 났을때 사용하는 임시타이어

질문)템퍼러리(임시) 타이어, 리페어 키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의견) “요즘은 긴급서비스 활성화로 길거리에서 타이어를 직접 교체하는 운전자가 거의 없어 예전처럼 무겁고 연비에도 좋지 않은 일반 스페어 타이어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나오는 차들은 가벼운 템퍼러리 타이어를 스페어로 장착하거나 아예 타이어 없이 리페어 키트를 장착해 출시하고 있습니다. 펑크가 발생해 템퍼러리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리페어 키트를 사용했다면 고속주행은 절대 삼가시고 교체 즉시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에 가서 조치를 해야합니다. 일반 스페어 타이어라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다 교체한 경우에는 고속주행 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히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스페어 타이어를 차량 앞바퀴에 장착하는 것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 제공)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결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b>토담</b> 광산구 비아소방서와 총흥파크사이 병어조림, 갈치조림, 아구찜, 홍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 대표 김광수 ☎062)954-1333	<b>똥이레</b>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꾸꾸미, 봉장어, 사브사브, 돌판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b>늘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b> 동구 광산동 56-1 (변지유업상실업) 부대찌개, 철판구이 대표 최은진 ☎062)222-9290	<b>시골집</b> 동구 금동 15-2 (구시청에서 병무청쪽) 생선김, 오리소, 생선매운탕, 회무침 대표 조공숙 ☎062)227-45659	<b>능이버섯백숙문화전당점</b> 동구 대의동 67번지 전일빌딩뒤 능이버섯백숙, 삼계탕전문 ☎062)223-1500	<b>고전방</b> 동구 금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b>무지개문화센터</b> 동구 계림동 서방사거리 이마트 코너 중목별 댄스스포츠 및 공예 수강 모집. 밸리댄스, 리본공예, 훌라션, 노래교실 등 대표 오성자 ☎062)529-1188	<b>아워홈테크</b> 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 한샘k제휴점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abs도어 연동문 씽크대 불박이장 대표 김창두 ☎010-6635-7224	<b>송하한정식</b> 동구 금남로 2가 10번지 청국장, 한정식, 백반전문 대표 이미자 ☎062)225-9278	<b>보성존제산일월사포교원</b> 북구 두암동 561-5홀플러스건너편 광주은행건물 4층 인해, 풍수, 사주연구소 연구원 원장 이성호 ☎010-8278-0030	<b>광주척추신체교정원</b> 계림동 마사회 건너편2층 카이로프랙틱, 신경질환,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시지관절, 손발저림증상, 전신경락 원장 박재남 ☎010-8827-7799	<b>무등공인중개사</b> 북구 문흥동 938-4 주공1차 2차트란채아파트건너편 아파트, 주택, 상가건물, 분양권 매매임대 전문 대표 권덕우 ☎010-9222-3339
<b>장충동왕족발보쌈</b>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족발 소 중, 대 보쌈김치 신속한 배달 카드결제 가능 ☎1588-3300	<b>박당화랑</b> 동구 금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b>골든보석</b> 북구 우산동 187-8번지 말바우시장 축산농협 건너편 예물귀금속전문점 대표 김춘복 ☎062)512-8100 ☎011-624-9200	<b>골든전당포</b> 북구 우산동 187-8번지 말바우시장 축산농협 건너편 귀금속 전당 고급시계 전당 대표 김춘복 ☎011-624-9200	<b>신신예술의집</b> 동구 금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b>광주화랑</b> 동구 금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b>석당화랑</b> 동구 금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b>다나베움</b> 동구 남동 169-4 (충장로1가입구민속촌옆) 호남최고 맞춤정장 결혼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b>그린이용원</b> 북구 양산동 오리궁평이 뒤 대표 성옥희 ☎010-3225-2735	<b>토산철학원</b> 북구 두암동 예림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명지도함 대표 이태열 ☎010-9655-7765		